



artnow

ISSUE 11



**SPECIAL: Studio
City Now
Style & Art
Artists & People
Art in Life
Collector
Exhibition
Masterpiece**



**by
Noblesse**

스튜디오와 쇼룸 사이



Photo by 김정근

도윤희 작가 작업실

현대미술 작가에게 스튜디오는 그의 정체성(identity)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다양한 매체를 희한한 방법으로 굴러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에게 스튜디오는 그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 작가인지 보여주는 곳이다. 개념을 중시하는 어떤 작가에게 작업실은 그저 '연구실'이다. 개념성이 강한 현대미술에서는 완성한 작품을 '누구 손으로 만들었는가'보다 '누구의 어떤 아이디어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티스트에게 물리적 작품을 만드는 곳은 실제 작업실 밖의 어느 공장이나 제작소고, 스튜디오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태동하는 '연구실' 기능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스튜디오가 곧 그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시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location)'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큐레이터와 딜러는 물론 관람객과 컬렉터도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작가를 이해하고 작가와 가까워지려 하는 것 또한 현대미술의 트렌드다. 그래서 현대미술 작가에게 스튜디오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쇼룸' 같은 역할도 한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작가 토니 아워슬러(Tony Oursler)의 작업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이 가득한 창고이자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서재다. 그는 "내 스튜디오는 여러 물건의 집합체(a mix of different things)"라고 말한다. 관객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의 와인잔, 어린이 키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긴 나팔 등 장난기 어린 물건이 가득하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눈 모양 조각이 곳곳에 있어 '여기가 토니 아워슬러의 작업실'이라는 걸 대번에 알게 한다. "작품에 유머를 넣으려고 노력한다", "작품을 통해 내 생각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작가의 생각이 그의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

멀티미디어 작가 정연두의 서울 작업실은 목공소, 철공소, 사진관, 서재를 합쳐놓은 멀티플 공간이다. 나무와 철을 다루는 각종 공구와 목재, 철판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공장 같고, 커다란 사진기와 필름 인화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진관 같고, 작가가 책을 읽고 리서치하는 공간은 딱 서재다. 정연두는 회화, 사진, 조각, 영상, 과학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매체에 손대는 작가다. "모르는 매체를 다뤄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기쁨이 크다", "작가가 재미있게 즐길 수 없으면 관람객도 즐길 수 없다"는 그의 철학이 그의 '재미있고 멀티플한' 스튜디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주(Michael Joo)는 조각,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설치를 넘나드는 개념미술가다. 물질에 대한 탐구,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모순된 정체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와 현대인에 대한 고민이 그의 작품을 구성한다. 생각이 복잡한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과학자의 실험실 같은 그의 작업실을 보면 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내 작품은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것이며, 내 스튜디오는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실험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스튜디오는 에너지와 가능성이

작가들에게 스튜디오는
더 이상 작업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업실을 방문해 작가의
작업을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최근 현대미술
애호가들의 트렌드다.
그래서 작업실은 어떤
면에서 쇼룸이기도 하다.



장사오강의 베이징 작업실

넘치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다. 각종 신기한 재료가 놓여 있는 스튜디오 테이블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설치 작품 같다. 그는 작업실 테이블을 두고 “여러 가지 물질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테이블”이라고 말한다. 마이클 주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부부 사이에 태어나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자랐다. 그는 자신의 집이 과학, 종교, 철학이 섞인 이중적인 곳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스튜디오도 딱 그렇다. 모순된 여러 물건과 생각이 들어찬 그의 스튜디오에서는 현대인의 이중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을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그의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에게 스튜디오는 진짜 ‘실험실’이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년)은 자신의 뉴욕 스튜디오를 ‘공장(The Factory)’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실제로 공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기계적 삶을 사는 현대인, 기계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자본주의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을 설명하는 데 ‘공장’보다 좋은 단어는 없으니 공장은 곧 ‘앤디 워홀’이다. 한편으로 그의 공장은 그의 주변에 있는 시각예술가와 뮤지션들이 만나는 집합소이자 예술가들이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는 미팅 장소이기도 했다. 자신이 속한 시대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워홀 작품의 핵심이기에, 뉴욕에서 매일 활발한 일상을 경험하는 그의 ‘공장’은 그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규정했다.

이렇게 작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작가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스튜디오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숨어 있다면 별 소용이 없다. 특히 미술관, 언론, 미술 시장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현대미술계에서는 미술인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으로 작가 입장에서 스튜디오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곧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면을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작가의 생각은 결국 작가가 처한 환경에서 나온다. 역동적인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오늘날의 미술 작가들은 그래서 동시대인을 매일 접할 수 있는 곳에 스튜디오를 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현대미술계에 유행처럼 퍼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는 국내외 공공 기관, 미술관, 사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접근성이 좋은 예술 중심 도시나 그 도시 주변의 건물 하나를 ‘스튜디오 건물’로 만들어 여러 아티스트가 한 건물에 입주해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작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후원’의 의미가 크지만, 작가 여럿이 모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미 기성작가인 한젠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건물에 입주해 작업하는 동안 “마치 학교로 되돌아간 것처럼 다른 작가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 이렇듯 현대미술 작가에게 스튜디오는 생각을 발전시키고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머릿속 같은 공간이자, 이 세상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쇼룸이다.